

제 4 과 목 : 민 법

1.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.
-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.
-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, 회사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④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.
-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2.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.
- ② 수익자의 불법성의 정도가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는 급여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.
- ③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급여를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,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.
-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타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.
- 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지급한 사례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된다.

3.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그 자신이 단독으로 금치산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② 금치산자는 재산행위에 관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- ③ 금치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사술을 쓴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미성년자가 수령한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으로써 미성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- ⑤ 행위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.

4.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② 선택채권에서 당사자에 의한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.
- ③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도 그 기간만료 전이라면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.
- 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.

5.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.
- ②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③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,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-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자의 상대방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.
- ⑤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6.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ㄱ.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
- ㄴ.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(補修)와 도급인의 보수(報酬)지급의무
- ㄷ.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
- ㄹ.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

- ① ㄱ ② ㄴ, ㄷ ③ ㄷ ④ ㄹ ⑤ ㄷ, ㄹ

7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미성년자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.
-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
- ③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(子)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.
- ④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.
- ⑤ 甲은 대리권 없이 부(父)인 乙 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는데, 그 후 乙이 사망하여 甲이 단독으로 乙을 상속한 경우,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하고 소유권이전채무를 면할 수 있다.

8.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of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하여야 하고 사자(使者)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없다.
- ③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변제를 한 선의의 채무자는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.
-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할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.
- 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.

9.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할 수 있다.
- ②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.
- ③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④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10.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ㄱ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.
- ㄴ.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ㄷ.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.
- ㄹ.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ㄹ ③ ㄴ, ㄷ ④ ㄱ, ㄷ ⑤ ㄴ, ㄹ

11.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의 각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- ②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- ③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.
-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.
- 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.

12.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.
-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.
-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.
- ④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,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였다면 수령의 최고 없이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이행지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채무이행을 최고하고,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13.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되지만,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.
- ③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지만, 제척기간은 자유로이 단축할 수 없다.
-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완성 후 포기할 수 있으나,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⑤ 소멸시효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지만, 제척기간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

14.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선택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,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.
- ②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.
- ③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
- ④ 제3자에 의한 급부의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.
- 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.

15.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, 불법행위책임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②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.
- ④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이어야 한다.
- 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·과실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.

16. 甲은 乙로부터 2009년 2월 13일 14시에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은 4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. 甲은 언제까지 그 대금을 완제해야 하는가?
(2009년 6월 13일은 토요일임)

- ① 2009년 6월 12일 24시(자정) ② 2009년 6월 13일 14시(오후 2시)
- ③ 2009년 6월 13일 24시(자정) ④ 2009년 6월 14일 24시(자정)
- ⑤ 2009년 6월 15일 24시(자정)

17.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

- ① 연대보증인은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이 없다.
- ②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보증과 달리 분별의 이익이 없다.
- ③ 보증연대의 특약이 있는 공동보증은 분별의 이익은 없으나 부종성과 보충성은 있다.
- ④ 보증채무 성립 후 보증인이 최고·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하면 보증연대로 전환된다.
- 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에 기한 항변권을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.

18.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,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그 선임·감독상 책임이 감경된다.
-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.
- ③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, 복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,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(민법 제126조)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- 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
19.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대위변제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갖는 데 불과하다.
- ②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.
-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.
- ④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.
-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.

20. A의 사기로 인하여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,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. 옳은 설명은?

- ㄱ. A가 乙의 대리인인 경우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ㄴ. A의 사기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던 경우,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- ㄷ.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甲은 선의의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ㄹ. 甲은 A의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21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중첩적(병존적)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.
- ②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.
-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성립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다.
-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.
- 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.

22.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더라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.
- ② 대표자의 임기만료 후 대표자의 개임이 없었다면, 유임 내지 중임이 금지되지 않는 한, 그 대표자를 묵시적으로 다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③ 감사에게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.
- ④ 노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될 수 없다.
- ⑤ 재단법인이 정관으로 그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정관규정은 변경될 수 없다.

23.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의무자는 과실 있는 감독의무위반과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초래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③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,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④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, 도급인은 그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.

24. 甲회사의 운전기사인 乙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丙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는데, 丙에게는 어머니 丁과 임신한 부인 戊가 있었다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
- ① 甲은 戊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
- ② 甲은 丁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
- ③ 乙은 戊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.
- ④ 乙은 丁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.
- ⑤ 甲은 태아에 대하여 그 출생전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25. 해제·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